

# SUNBO NEWS

since 1986

www.sunboind.co.kr

E-mail sunbo@sunboind.co.kr

대표전화 051. 261. 3454

본사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80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PLUS2020 | 고객이 영업을 창출하는 명품 모듈 생산 초우량 기업

2018년 8월 15일

vol. 175

주요 소식

## 2018년 상반기 사업실적 발표회 실시 전사 사업현황 파악 및 공유 통해 생산성 제고 기회



우리 회사는 지난 7월 14일 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대학관 1층에서 2018년 상반기 사업실적 발표회를 실시하였다. 우리 선보기족은 성과 지표 재점검 및 분석을 통한 발 빠른 대책과 생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매분기 전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발표회를 마련하고 있다. 올해 발표회에는 대리급 이상의 임직원이 함께하였다.

최금식 회장이 개회사로서 행사의 시작을 알렸으며 각 부서별 사업실적 발표 및 하반기 계획 발표로 진행되었던 기존의 발표 형식을 탈피해 각 부서별 중요현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영업 1,2팀의 '영업 매출 및 하반기 수주 분석'을 필두로 기획부의 '공장별 상반기 생산 요약 및 원가 절감 현황', 설계(조선·플랜트)부의 '상반기 설계 개선활동' 발표, 품질(조선·플랜트)부의 '품질 현황' 발표, 자재조달부의 '구매 현황' 발표, 각 공장별 현황 발표, 경영지원부의 '경영지원 현황' 발표, 전산부의 '달라지는 업무 방법 소개' 등 전사적 공유가 필요한 정보, 원가 절감, 생산능력, 자재관리, A/S 비용 절감 등 각 부서별 중요현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에 따른 생존전략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금식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 전원이 각 팀의 발표가 끝날 때마다 코멘트와 상호 협의를 통해 날카로운 분석과 의견 제시로 기존 방식에서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이날 행사는 최금식 회장의 강평 및 기념 촬영을 마지막으로 오후 5시가 넘어 종료되었다. 최금식 회장은 강평을 통해 자재비 상승분을 감안하여 실패 비용을 zero화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과 HSE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어갈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이날 발표회에서 전사는 각 부서별 실행 계획과 일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중간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한뜻으로 나아가자며 결의를 다졌다. 전사가 한자리에 모여 각 사업장별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나누며 목표를 공유한 이번 발표회가 바탕이 되어 생산성 향상을 불러오기를 기대한다.

회사 소식

## 최금식 회장, 오거돈 부산시장 주재 부산조선해양기자재조합 간담회 참석



최금식 회장은 지난 7월 24일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오거돈 부산시장과 조선기자재업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조선해양기자재업체 발전을 위한 제언 및 건의사항을 전달하였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조선산업·조선기자재 등 지역 주력산업 부진으로 인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조선해양기자재업체를 찾았으며, 이날 간담회는 관련 기업 방문 뒤 이루어졌다.

최금식 회장을 비롯하여 부산지역 조선해양기자재업체를 대표해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오 시장에게 조선해양업의 어려움과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전달하였다. 이에 화답하여 오거돈 시장은 "기업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시장에 반영토록 노력하여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 자주 기업 현장을 방문해 기업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바탕으로 오 시장과 관계자들은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연계한 러시아 불류센터 전진기지 구축', '현대글로벌서비스와 조합원과의 AS 협력사업' 등 관련 현안에 대한 원활한 추진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민선7기 첫 기업 현장 방문으로 조선해양기자재업체를 찾은 만큼 부산에서 조선산업이 차지하는 위치는 그만큼 크다고 할 것이다. 조선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관련 구성원들의 노력에 더하여 시 차원의 현실적이고 선제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러한 적극적인 행보가 국가 경제를 견인해온 조선업의 부흥기를 다시금 일으키기를 기대한다.

안전

## 구평1공장 안전 캠페인 실시



구평1공장은 지난 8월 6일부터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 캠페인을 매주 월요일 진행 중이다. 구평1공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페인에는 구평1공장 공장장 생산관리자 및 협력사 대표들을 비롯한 관리자 35여 명이 참석하였다. 아침 6시 50분, 정문으로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향해 “오늘도 안전 합시다!”라는 우렁찬 인사가 전해졌다. 근로자들 역시 “오늘도 안전 합시다!”라고 같은 말로 화답하며 안전한 하루를 보낼 것을 다짐하였다. 구호를 통해 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잡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한편 우리 회사는 지난 5월 31일 최금식 회장, 최상식 사장, 김상도 고문, 사공운곤 부사장을 비롯한 선보유니텍 전 임직원 및 협력사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결의대회를 실시한 바 있다. 임직원들의 안전 의식을 더욱 확고히 고취하여 관리자와 작업자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이날 결의대회에서 우리 회사는 7대 안전수칙을 선포하였다. 선보 패밀리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7대 안전수칙에 따라, 선보유니텍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 역시 이 수칙을 지켜야 하며, 안전 규정을 위반할 경우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제재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이날 캠페인에 참가한 MD 및 구조팀 박현일 과장은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출근시간에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안전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에 실제로 도움이 되어 좋았다”라고 소감을 전하였다. 리가스팀의 성장훈 과장 역시 “함께 ‘안전 합시다!’라고 구호를 외침으로써 주말 동안 해이해졌던 나 자신을 한번 더 바로 잡을 수 있었다”라며 이번 캠페인의 효과에 대해 기대감을 밝혔다.

안전의식의 제고를 통해 안전문화를 정립하고 위험 작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전사 차원의 이러한 노력들이 선보 패밀리의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 선보 7대 안전수칙



**1. 작업현장 출입 시 반드시 안전보호구 착용**  
현장출입자는 반드시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경)를 착용한다.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의무화



**2. 작업 시종 30분 전 작업장 위험요소 사전 발굴 및 사고예방**  
생산관리자는 작업현장에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 안전조치한다.



**3. 작업장 안전통로 확보**  
안전통로는 안전으로 가는 길임을 명심하고 언제나 확보, 유지한다.



**4. 모든 근로자는 배치 전 안전교육 실시**  
작업장에 투입되는 모든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5. 사전 작업허가 준수**  
밀폐공간, 화기, 도장, 정전, 고압, 퍼징(알곤) 작업 시 부서간 사전승인 후에 HSE 최종확인 받는다.



**6. 밀폐구역 출입 시 산소농도 측정**  
밀폐공간 출입 시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를 철저히 이행한다.



**7. 안전장치 임의해제 금지**  
양중기(크레인), 운반기(지게차, 고소차), 전기설비(용접기), 공작기계(그라인더) 등 안전장치를 임의해제 하지 않는다.

안전

## 열사병 예방 3대 안전 수칙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 열실신 등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다. 폭염에 대비한 3대 기본 수칙을 기억하고 지키자.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물’, ‘그늘’, ‘휴식’



**물**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규칙적으로 마셔준다.



**그늘**  
· 작업장 근처에 그늘진 곳을 마련하여 작업자가 쉴 수 있도록 한다.  
· 그늘막은 햇빛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으로, 시원한 바람이 통하도록 마련한다.



**휴식**  
· 폭염특보 종류에 따라 휴식시간을 차등하여 마련한다.(시간당 10분~15분씩)  
· 습도가 높은 경우 휴식시간을 늘린다.

## 여름철 식중독 예방 기본 수칙

식중독균이 잘 자라는 고온다습한 환경 및 세균과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모기, 파리 등의 활발한 활동 탓에 여름철에는 식중독이 잘 발생한다. 기본 수칙을 지켜 건강을 관리하자.



**손씻기**  
식전, 요리 전에는 반드시 비누거품을 충분히 내어 손을 씻는다.



**어패류 익혀 먹기**  
생선 및 조개류는 깨끗한 물에 씻어 반드시 익혀 먹는다.



**조리 도구 관리**  
어패류, 생고기 등은 반드시 전용 칼과 도마를 사용하고 사용 후 소독한다.



**음식 보관**  
실온에서는 식중독균이 급속히 증식하니 조리한 음식은 최대한 빨리 먹고 남은 것은 냉장 보관한다.

회사 소식

## 선보엔젤파트너스 싱가포르 오피스 설립



선보엔젤파트너스가 싱가포르 오피스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알렸다. 선보엔젤파트너스는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액셀러레이터로서, 단순한 투자가 아닌 기술과 산업, 그리고 투자를 연결하는 것("Connecting Dots")이 주 업무이다. 때문에 한국에 국한하기보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련 활동을 펼쳐나가는 것이 선보엔젤파트너스의 정체성에도 부합하며, 이런 연유로 설립 초기부터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본격적인 해외 진출에 앞서 2017년 한 해 동안 런던과 북유럽, 싱가포르, 인도, 중국, 베트남 등 해외시장을 탐색한 선보엔젤파트너스는

장고 끝에 첫 번째 해외 거점으로 싱가포르를 선택하였다. 그 근거로서 첫째, 중국, 홍콩,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팽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과 접근성이 높아서 투자 기회 또한 많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싱가포르의 발달된 사회경제 시스템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안정적이다. 셋째, 싱가포르는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자금이 집중되는 '아시아의 금융허브'로서 차후의 해외 시장 확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첫 번째 해외 거점으로 싱가포르를 선택한 선보엔젤파트너스는 지난해 10월 싱가포르에서 첫 해외 데모데이를 개최하였다. 데모데이에는 현지 개인 투자자와 벤처 투자사,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투자 유치를 위한 유의미한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날 초청받은 싱가포르 벤처캐피탈(VC) Expara가 선보엔젤파트너스의 포트폴리오사인 '다나그린(3차원 세포 배양 기술)'에 관심을 보인 것이다. 바이오 전공자인 EXPARA의 Rosalind 부사장이 다나그린의 3차원 세포 배양 기술에 관심을 보이며 투자 계획이 수립되었고, 약 6개월간의 기술 검증 및 실사를 거쳐 실제 계약을 체결하였다. 기술 검증 및 실사 과정 동안 선보엔젤파트너스는 액셀러레이터로서 매출 예상, 인력 보강 계획 등 사업 및 재무에 관련된 멘토링을 진행하였고, EXPARA와 다나그린 간 소통을 조율하는 커뮤니케이터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재 선보엔젤파트너스는 효율적인 싱가포르 현지화를 위해 최영찬 대표와 오종훈 대표가 매달 싱가포르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현황 파악 및 계획을 수정하고 있으며, 실무진 또한 파견하여 현지 투자자와 기관 네트워크, 창업팀 발굴 활동을 진행 중이다.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현지화를 위한 현지 직원 채용 리크루팅도 진행되고 있다.

기술과 산업, 그리고 투자를 연결하는 비전에 따라 선보엔젤파트너스는 향후 싱가포르에서도 이에 집중하여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연결'을 위해서는 연결할 수 있는 점들을 엄선하여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야 한다. 선보엔젤파트너스 싱가포르 오피스는 다양한 포트폴리오사 확보를 바탕으로 한국의 기술과 싱가포르의 산업을, 또한 싱가포르의 산업에 한국의 기술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향후 유럽 및 미국으로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글로벌 레코드를 쌓아갈 계획이다.

회사 소식

## 선보엔젤파트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 개최



선보엔젤파트너스는 지난 7월 26일 선보엔젤파트너스 본사에서 블루포인트파트너스(대표 이용관)와 함께하는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데이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였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라이트하우스 현황을 비롯해 테크 전문 액셀러레이터인 블루포인트파트너스와 스타트업 4개사(씨엔테크, 지디센트론, 지프코리아, 폴라리언트)의 기업홍보(IR, Investor relations) 및 오픈이노베이션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산업은행 서성호 실장을 비롯해 기성전선, 조광페인트, 현대공업 등 경남권 중견기업의 대표이사들과 관계자 40명, 창업기업 10명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선보엔젤파트너스 측의 '라이트 하우스 현황 발표'로 문을 연 이번 행사에서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이용관 대표는 액셀러레이터가 바라본 스타트업 생태계 및 액셀러레이터 생존기를 주제로 "스타트업 시장의 문제점과 창업에 임하는 자세"라는 강연을 진행하였다. 이어 씨엔테크의 '동산 담보물 관리 솔루션', 지디센트론의 'VOC 검출 가스센서', 지프코리아의 '유해가스 누출 감지 산업용테이프', 폴라리언트의 'VR모션 컨트롤러' 등 스타트업 네 개사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선보엔젤파트너스는 지역 벤처기업 등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자리를 향후 더욱 자주 마련하여 투자처와 스타트업을 이어주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회사 소식

## 구평1공장 소통간담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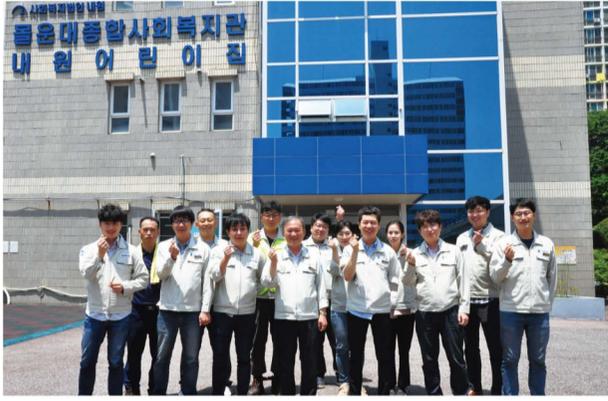


구평1공장 M/D&구조팀은 7월 18일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소통간담회는 공정 간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주관부서 및 참여부서 구성원이 참석하였다. 같은 날 버가트팀 역시 소통간담회를 통해 협력업체와 문제점을 토의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기회로 삼았으며, 생산공정 안정화 및 상호 협력증진을 통한 협업의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소통간담회는 사무직과 생산직, 사내 협력사 간 상호 협력 증진을 다짐하는 소통의 경로를 열어줌으로써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는 한편, 협업의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동기를 부여코자 기획되었다. 공장 간 주력제품별 생산 환경과 인적 구성 비율이 다르며 평소 소속 및 사내 협력사 간 스킨십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소통간담회를 계기로 부서 간 협력사 간 교류 확대 및 조직일체감과 소속감을 심어줌으로써 전사적인 응집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D&구조팀과 버가트팀 역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서로 협력함으로써 조금 더 개선된 사업장을 만들어나가자고 다짐하였다.

사회 공헌

# 몰운대 종합사회복지관 급식 봉사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지난 7월 17일, 우리 회사는 지역 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몰운대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에서 급식 봉사 활동을 하였다. 이번 봉사에는 최홍렬 전무 외 본사 직원 16명과 구평공장 직원이 참여하였다. 오전 10시 50분 경로식당에 도착한 봉사단은 가장 먼저 배식 준비를 시작하였다. 이날의 메뉴는 초복 맞이 삼계탕. 더운 날씨에 뜨거운 국을 배식하거나 뜨거운 물로 설거지를 하느라 땀으로 목욕을 해야 했지만, 참가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배식과 설거지를 돕는 등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날 봉사는 미리 준비해 간 백설기와 요구르트 120인분을 함께 나누어드리는 것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봉사

이후 땀범벅이 된 임직원과 복지관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최홍렬 전무가 아이스크림 파티를 열어 자원봉사자들을 재차 격려했다.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김민아 관장은 “이곳은 사하구 내에서도 2,000여 세대의 공공 임대 주택이 있는 곳으로, 주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많다”라며 “매일 급식과 도시락 배달을 위해 1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선보공업에서 복지관을 찾아 일손을 보태주어 큰 힘이 된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사회공헌 분위기를 확산을 위한 선도적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사내 복지

# 해운대힙합페스티벌, 오페라 <로미오&줄리엣> 관람 지원



지난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시대’가 열리며 자기계발 등 여가 활동 하거나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많아졌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유의미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먼저 7월 20일과 21일 을숙도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오페라 <로미오&줄리엣> 공연 관람을 지원하였다. 해당 공연은 셰익스피어의 명작 <로미오와 줄리엣>을 오페라로 만날 수 있는 색다른 기회로, 부산지역 예술인들이 협업해 올린 작품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 깊다. 딸과 함께 공연을 관람한 자재조달부 예연희 사원은 “여러 가지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즐길 수 있어 좋았고, 배려 깊은 회사의 지원으로 딸과 추억을 하나 더 만든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관람 후기를 전하였다. 이어 7월 27일에는 해운대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해운대힙합페스티벌’ 관람을 지원하였다. 힙합페스티벌은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각광받는 공연으로, 이날 역시 폭염을 뚫고 많은 관람객이 공연을 찾아 뜨거운 열기를 증명하였다. 공연 관람을 위해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경영지원부 이대현 계장은 “힙합 공연의 뜨거운 열기로 여름 더위는 물론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까지 단번에 날려버린 좋은 기회였다. 이런 공연 관람을 지원할 수 있었다는 데 주관부서의 담당자로서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며 한 발 앞서나가는 직원 복지를 실천 중인 우리 회사의 노력들로 인하여 직원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으며 좀 더 행복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Hot Topic

## 최금식 회장, 서부산세무서 세정협의회 위원 위촉



최금식 회장이 서부산세무서 세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위촉기간은 2018년 6월 5일부터 2020년 6월 4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최금식 회장은 세정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 법사랑위원 부산서부지역연합회, 청소년 선도 상담실 개소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서부지역연합회(회장 최금식)는 지난 7월 23일 다대포 해수욕장 청소년 선도 상담실을 개소했다. 해당 상담소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여름철 청소년 탈선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생일 축하합니다

- ☑ 본사 김외군(8.03) 최두영(8.20)  
이재무(8.24) 김천기(8.29)  
이우석(음8.09)
- ☑ 1공장 김규성(8.05)
- ☑ 2공장 이기석(8.11) 정지훈(8.13)  
엄범기(8.15) 심규산(8.19)  
김계원(8.20) 장차열(8.22)  
김윤덕(8.26) 박찬수(8.27)  
정종길(8.28)
- ☑ 구평공장 정정배(8.06) 강화진(8.08)  
김병록(8.10) 정준영(8.14)  
스와르노(8.16) 조상연(8.16)  
이동준(8.17) 이연호(8.23)  
공대성(8.25) 황길성(8.27)  
양승현(8.28) 성정모(음8.15)
- ☑ 구평1공장 강종원(8.01) 김용덕(8.02)  
손홍채(8.10) 이승욱(8.12)  
정재희(8.12) 김 신(8.13)  
신창현(8.14) 김광수(8.15)  
김영민(8.15) 김우현(8.15)  
김정식(8.15) 오갑항(8.15)  
정영준(8.15) 이명직(8.19)  
이권호(8.20) 진종관(8.20)  
민병철(8.21) 김성진(8.22)  
주상기(8.22) 조원우(8.24)  
안병래(8.25) 김만찬(8.28)  
권혁래(8.30) 오세만(8.30)  
전동혁(8.31)
- ☑ 영암공장 황창하(8.06) 프라산나(8.24)  
김덕현(8.25) 설상철(8.30)

상사 기념일

- ☑ 본사 이우석(8.08) 박석현(8.10)  
김천기(8.11) 이옥렬(8.13)  
최경호(8.13) 임민지(8.24)
- ☑ 1공장 노재태(8.02) 김규성(8.06)  
김정민(8.07) 이은식(8.16)  
정덕희(8.27)
- ☑ 구평공장 엄태길(8.05) 표종원(8.24)
- ☑ 구평1공장 박철우(8.01) 이규섭(8.01)  
이석오(8.01) 김재승(8.03)  
이승원(8.03) 서회윤(8.04)  
김은식(8.06) 김범준(8.09)  
이영근(8.10) 윤진수(8.11)  
신영숙(8.12) 차원욱(8.12)  
김영민(8.16) 신채식(8.16)  
최익순(8.16) 황 성(8.19)  
박성준(8.23) 신명환(8.24)  
김동국(8.25) 김영복(8.25)  
문정희(8.25) 박용범(8.25)  
최현창(8.25)
- ☑ 영암공장 노성담(8.01) 김대영(8.04)  
강보철(8.06) 이대현(8.06)  
장진실(8.07) 최소연(8.07)